

어린양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4월 19~20일 '부활주일', 칸타타 등 행사 이어져
강동 '2025 행복이음 축제', 차세대 '부활절 갑티슈'

어린양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하셨습니다. 온 누리에 예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주일을 보낸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4월 19일(토)과 20일(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다. 서빙고온누리교회 토요주일 1~2부 예배에서는 버금미션콰이어&양상블이 'I AM', 일요주일 1~4부 예배에서는 주사랑찬양사역팀이 '주 하나님 크시도다' (How Great Thou Art)를 주제로 칸타타를 한다.

양재온누리교회 토요주일예배에서는 김영미 권사와 양재토요챔버(이선희 권사), 일요1부 챔버(박정규 성가사)가 '부활, 생명주신 주님!', 양재 일요주일 1~4부 예배에서는 도곡주경배찬양사역팀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주제로 찬양한다. 도곡교육관 일요주일 1~2부 예배에서는 도곡주임재찬양사역팀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라'를 주제로 칸타타

를 한다. 다른 캠퍼스는 캠퍼스 일정과 상황에 맞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다.

강동온누리교회에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눈다. '2025 행복이음 축제'가 4월 20일(일) 오후 1시 30분 강동구 천호로데오거리 나비쇼핑몰 앞 광장에서 열린다. 부활절 달걀 나눔,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부스, 평강 포토존, 강동 연합찬양사역팀과 강동 온유대학부의 워십, 서초C공동체 특별 순서, 지역 예술가와 단체들이 참여하는 무대 등을 한다.

차세대에서는 '부활절 갑티슈'를 나뉜다. 부활절 갑티슈에는 가족예배 가이드와 기도문, 참고 영상이 들어있다. 차세대 부서에서는 부활절 드라마, 계란꾸미기, 부활절 무드등 만들기 등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2차 긴급구호팀 파견

CGN, 이재민 위한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이 경북 의성에 2차 긴급구호팀을 파견한다. 4월 25일(금)부터 29일(화)까지 경북 의성에서 발차 운영 및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지역 교회와 성도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와 위로도 할 예정이다.

긴급구호 활동을 함께할 대학청년부 자원봉사자도 10명 모집한다. 대학청년부 각 공동체에서 안내하는 온라인 링크로 신청하면 된다.

CGN에서도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과

교회를 돕는다. 이재민을 위한 '2025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을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5월 30일까지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10-60104)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후원금을 보낼 때 이름과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잊지말고 기록해야 한다(예: 김사랑 750329). 후원금 전액 산불 피해 이재민과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한다.

/ 홍하영 기자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어린양을 바라보라' 종료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어린양을 바라보라'가 종료됐다. 1주차 '영원하신 어린양', 2주차 '이 땅에 오신 어린양', 3주차 '세상을 섬기신 어린양', 4주차 '죽임 당하신 어린양', 5주차 '부활하신 어린양', 6주차 '다시 오실 어린양'을 주제로 지난 3월 10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 이어졌다.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 강부호 목사, 이기원 목사, 이기훈 목사, 온누리교회 30~40대 부목사들이 설교했다.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

활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환 집사(마포공동체)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 임하진 성도(서빙고온누리교회)는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잊고 교만과 불평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했다"면서 "어린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닮고 싶다"고 소망했다.

온누리 회복축제 '온전함'

5월 14~16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2025 온누리 회복축제가 '온전함'을 주제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및 선교관에서 막 오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축제가 이어진다. 회복축제 '온전함'은 온누리교회 회복사역본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교회상담사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다.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 누군가의 온전한 회복을 돕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7만 원(4월 30일까지 사전등록하면 5만 원)〈관련기사 5면〉.

회복축제 '온전함'에서는 14일 '마음 돌봄', 15일 '정신 치유', 16일 '영혼 회복'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기독교 상담 및 심리치유 분야 저명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고병인 교수(고병인가족상담연구소 소장), 채규만 교수(성신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권수영

교수(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이호선 교수(송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남윤영 박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류경숙 박사(강남GEM아동가족상담센터 소장), 박상미 교수(한양대학교 대학원)가 오전에 강의한다. 오후에는 회복축제 참가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 강의를 선택해서 듣는 선택 강의를 진행한다. 정신건강, 정서 치유, 부부/가족 관계, 교회 상담, 미디어 중독, 영적 돌봄, 아동 상담, 성경적 상담 등의 주제를 다룬다. 문의: 02-3215-3532

/ 홍하영 기자



굿월스토어 기증캠페인

4월 20일과 27일 각 캠퍼스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을 한다. 4월 20일(일)과 27일(일) 서빙고, 양재, 부천,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강동온누리교회에서 한다. 양지온누리교회는 4월 20일(일)에 한다. 서빙고와 양재, 부천, 대전, 평택, 양지는 교회에 설치되는 굿월스토어 기증함에, 인천, 남양주, 강동은 교회 내 지정 장소로 기증품을 가져오면 된다. 기증품이 많은 경우에는 굿월스토어에 연락하면 방문 수거한다. 굿월스토어 기증품은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가방, 잡화, 도서, 음반, 주방용품,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이다. 굿월스토어는 성도들의 기증품을 굿월스토어 매장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문의: 1533-0091

/ 박지혜 기자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기준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여부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진리를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하고, 반역자들은 처벌하는 것으로 도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순교적 증언을 통해, 반역하는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진리를 증거하도록 증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역한 세상을 향해 증거할 때 일어날 일들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사도 요한을 증인으로 다시 세우셔서 진리를 증거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11장은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에게 권세를 주셔서 진리를 증거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다시 증인으로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난 환상은 밧모섬에 유배되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요한이 다시 증인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이 강한 천사가 구름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으며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있고, 왼발은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사의 웅장한 모습입니다.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온 어린양이 인봉을 떼는 바로 그 책을 의미합니다. 섬에 유배

세상 끝에 선 증인들

요한계시록 10:1~11, 11:15~19

“부활 생명으로 살며 증거하는 순교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반역자들이 회개합니다. 영혼들의 회개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두 증인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되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위축되어 있으며 단념한 요한에게 “다시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강한 천사가 말씀해준 내용은 순교자들이 던져왔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순교자들의 첫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입니다. 그 질문에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5~7절). 선지자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요한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9~10절). 에스겔은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시대, 이방민족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시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인 시대에 에스겔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적대적인 상황에서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었던 명령을 요한에게 주신 것은 그가 처한 상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다’는 것은 내면화되고 인격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체험하고 내 인격의 일부가 된 진리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능력은 말씀의 체험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묘하고, 은혜롭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는 매우 쉽습니다. 인격화되려면 순종이 있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는 좋아하지만, 쓰고 어려운 말씀으로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진리를 증거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핍박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요한이 밧모섬에서 조용히 사라진 인생이 아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충성된 증인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9장을

비롯한 율법에 보면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권세를 쥐서 1,260일 동안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1,260일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교회 고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신 모든 교회,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이 증인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명의 구약 선지자들을 상기시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합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가 세 장면으로 전개되는데,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처럼 권세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계 11:5~6).

엘리야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그 시대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예언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어린양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나타난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를 개인과 역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과 역사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을 미래의 일들을 점치는 듯이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행했던 이들이 위기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처럼 두 증인도 죽임당하고 모욕당합니다(계 11:7~8).

예수님이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던 것처럼, 이 증인들도 짐승에게 죽임당하고, 짐승의 추종자에게 모욕을 받고, 그 시체가 거리에 놓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군대가 전쟁에서 돌아오면 환영하는 가로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체에 기름을 부어서 장대에 매달아 불태워서 밤에 로마 군인들이 들어올 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치욕과 멸시를 줬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시고 대적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 것처럼, 이 세상 짐승 같은 이들의 권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임함으로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승천하듯 함께 승천했습니다(계 11:11~12).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된 자이며, 마지막 그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우리의 모든 증언이 진리임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렸고 7,000명의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계 11:13).

그들의 증언과 순교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심판과 함께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심판 없이 증거만으로 이루지 않고, 심판과 함께 주어지는 증언이 사람들을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증인들이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부활로서 확증되었기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 하나님은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마지막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회개 역사가 일어난 뒤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어집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는 마지막 심판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계 11:15). 인을 떼는 재앙에서는 모든 것이 끔찍한 재앙으로 멸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나팔 재앙에서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모든 악과 모든 대적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란 세상 끝에 서 있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세상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증인으로 존재합니다. 이 시기의 의미는 오직 선교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간 두 증인으로 존재합니다. 권세와 능력과 표적만으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심판만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고난 받고 죽임 당했으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증거하는 순교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반역자들이 회개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로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영혼들의 회개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두 증인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증인된 이들의 축복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온누리세계관학교 특집-자유민주주의

신(God) 없는 민주주의의 위기

요즘 어딜 가나 위기라고 한다. 정치는 엉망이고, 경제도 어렵다고 한다. 연일 대중 정치 집회도 끊이질 않는다. 그러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은 정상대로 운행되고 있으며(간혹 안국역 등을 무정차 통과하긴 했지만), 마트에는 항상 온갖 상품이 쌓여 있고, 은행 ATM기는 잘 작동되고 있다. 겉으로만 보서는 왜 위기인지 모르겠다. 은행 인출이 중단된 것도, 상점에 식료품이 동난 것도, 거리에 무장 집단이 소총을 들고 활개 치는 것도 아니다.

약 2년 전 어느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옛 동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토요일 오전이었다. 50대 중후반 노동자들이 웅기종기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작업이 없는 날이지만, 집에 있자니 무료하고, 마누라들이 집에 있는 것을 싫어해 그냥 나왔다는 것이다. 화제는 기라기 아빠, 아파트값 등이었다. 대부분 35평 정도의 아파트에 살면서 중형차를 몰고 있었으며, 해외여행도 제법 자주 간다. 그러나 입만 열면 ‘가진 자’들에 대한 원망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주 52시간 노동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주장이 많았다.

“놀면 뭐 해. 오늘 같은 날 일 하면 특근수당도 챙기는데...”

무료하던 이들은 결국 공장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소주와 새우깡을 사서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를 막 넘기고 있었다. 한국 중년 남자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놀 줄을 모른다. 그저 술 마시고 노래방

가는 것밖에. 웬지 모를 서글픔이 온몸을 휘감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의 본질은 정치, 경제에 있지 않다. 외향상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나 단군 이래 오늘처럼 잘살아 본 적이 없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그렇다. 한국만큼 물질적으로 잘사는 나라,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불만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부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혹자는 ‘도덕의 위기’라고도 한다. 하지만 어떤 도덕을 이야기하는가? 삼강오륜을 말하는 것인가? 임꺽정과 홍길동을 영웅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절도’와 ‘강도’는 찬양받을 일이다. 그리고 조폭 세계에서는 ‘의리’가 도덕의 기준이다. 살인도 용서된다. 절대적 가치(도덕)가 붕괴한 사회, 즉 절대자 신(God)이 사망하고, 인간이 신의 지위에 오른 사회에서 도덕과 법이란 인간이 편의상 만든 ‘합의’ 혹은 ‘계약(contract)’일 뿐이다.

인간 사이에서의 합의란 언제든지 필요하면 깨져도 상관없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법을 초월한 강자가 숭배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 또 ‘가진 자’는 죄인이고, ‘못 가진 자’는 의인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사고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특히 영화를 보면 그렇다. 가진 자는 대개 나쁜 놈으로 나온다.

과거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산주의와 빵 더 만들기 경쟁을 벌였다. 그리고 압도적으

로 승리했다. 그러나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영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을 쫓아내고 빵만 추구했다. 행복의 세속적 기준은 돈과 성(性)이 됐다. TV만 있어도, 자가용만 있어도, 아니 해외여행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꿈을 이뤘다. 그러나 정신은 둘째치고, ‘물질적 갈증’만 심해졌다. 더 큰 아파트, 더 고급 승용차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날로 높아지는 인정욕구가 명예욕과 권력을 추구하게 만든다. 그 공허한 자리를 온갖 거짓 신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성리학 조선이 멸망했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하기가 조선에는 ‘자유’란 말조차 없었다. 일본인이 서구어를 한자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 식으로 발음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1948년 대한민국이 세워졌지만(조선은 1392년에 건국),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체화하기도 전에 6·25전쟁을 겪어야만 했다. 그 폐허 속에서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 아래 빵을 추구했다. 교회도 팽창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 정도로 취급하는 풍조도 생겨났다. 하기가 ‘기복신앙’ 운운하며 ‘인간의 근본적 죄성’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의로움만 내세우는 위선적 바리새인의 모습이 더 보기 싫긴 하지만.

문제는 세계관이다. 기독교 세계관 없이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세상

은 그렇다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 아니다. 무기물에서 진화된 ‘털이 적고 다소 지능이 높은 원숭이와 동물’에게 어떤 특별한 존엄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유물론자들에게는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사람 중심’ 운운한다. 사람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그러나 정작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 결국, 그 자리는 ‘거짓 신’ 혹은 ‘수령’이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가짜 신은 행복을 주겠다고 선언한다. 행복을 주겠으니 신과 같은 권력을 달라고 한다. 또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다수’가 항상 옳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이 얼마 안 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 쳤다.

‘신 없는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문명과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생겨나고 발전해 온 이념이자 제도다. 그런데 기독교인조차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온누리 세계관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생각해 볼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황성준 위원
(前 문화일보 논설위원)

특별기고

C.S. 루이스의 회심 이후 신앙 여정

1945년 4월 4일 C.S. 루이스의 유명한 강연 시리즈 마지막 강연을 BBC에서 방송했다. 이 대답이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서적으로 꼽히는 〈순전한 기독교〉의 모체가 되었다. C.S. 루이스는 신학이 아닌 철학, 논리학, 문학으로 훈련받은 평신도였다. 그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에 관한 심오하고 중요한 작품을 집필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이 C.S. 루이스가 무신론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회심 이후 그의 영적 성장에 대해 아는 이가 많지 않다. C.S. 루이스는 회심 4년 후인 1935년 옥스퍼드 영문학대에서 16세기 문학에 관한 책을 집필하는 임무를 맡으면서 영적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C.S. 루이스는 토마스 모어의 모든 작품과 가톨릭과 개신교 사상가들의 번역본을 포함해 16세기 영어로 출판된 모든 책을 읽었다. 역사 신학에 대한 탁월한 교육을 통해 그는 종교개혁의 각 진영에서 제

기한 많은 비난이 전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풍자한 것임을 깨달았다. 이를 계기로 그는 BBC 연설에서 모든 기독교인이 동의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명칭은 17세기 청교도 리처드 벡스터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C.S. 루이스의 영적 성장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1940년 그가 ‘영적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인근 카울리 마을에 성공회 사제 ‘성 요한 전도자회’의 월터 아담스 신부가 살고 있었다. C.S. 루이스는 12년 동안 매주 아담스 신부를 만나 고해성사와 영적 지도를 받았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아담스 신부는 C.S. 루이스를 전통적인 경건 훈련으로 인도한 성공회 신부였다. C.S. 루이스는 매월 〈시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만찬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가졌다. 아담스 신부가 그에게 성 요한 전도자 협회 창립

자인 리처드 뫼 벤슨을 소개해 주었다. 벤슨의 신학은 C.S. 루이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순전한 기독교〉4권에 담긴 사상이 큰 영향을 받았다.

아담스 신부의 영적 지도는 C.S. 루이스에게 심오하고 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C.S. 루이스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죄의 극복을 기도와 금식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아담스 신부와 만남에 대해 전혀 몰랐던 친구들에 따르면, 1940년대 초 C.S. 루이스의 성격이 심오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고요한 행성에서〉와 〈교통의 문제〉를 제외한 C.S. 루이스의 모든 책은 그가 아담스 신부를 만나기 시작한 이후 집필했다. 실제로 그는 전쟁 중에 왕립 공군 기지를 돌아다니며 연설하고, BBC에서 〈순전한 기독교〉로 출간될 내용을 강연했으며, 받은 모든 편지에 직접 답장을 보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1940년 이후 책 저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물론 C.S. 루이스는 놀라운 두뇌와 탁월한 학력, 글쓰기 능력을 타고났다. 하지만 그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영적 형성 과정에는 ‘깊은 경건한 삶’과 진지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수반되었는데, 역사적인 기독교 전통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었다. 독학으로 신학 공부를 한 C.S. 루이스는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힐 만큼 폭넓고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서 영적 훈련, 예배, 영적 책임감을 실천하며 훈련했다. 머리와 마음이 한결같은 C.S. 루이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허락하셨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토대를 제공한 ‘제자도의 모델’이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글렌 선사인(前센트럴 코네티컷 주립대학교 역사학 교수)

원문: breakpoint(20250404)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 아름다운 동행

도시미자립교회와 'Acts29 도시교회선교팀'

온누리교회 올해 표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와 짝을 이루는 표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준비된 신부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준비된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성품을 닮은 사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온누리신문>에서 바로 그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그 여섯 번째 주인공은 사회선교본부 소속 'Acts29 도시교회선교팀'(이하 도시교회선교팀)이다. 그들은 도시미자립교회들이 지역 사회에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전도 열정을 회복하도록 어깨를 내어주고 있다. 그 아름다운 동행이 야기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Acts29 도시교회선교팀이 진행한 꿈의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식에서 수료자들이 축하를 받고 있다.

도심의 골목 어귀마다 외롭지만 꺼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작은 교회들이 있다. 재정적 어려움에 한숨만 나오고 몇 안 되는 성도마저 떠나는 아픔에 눈물지를 때가 많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교회들이다. 오직 지역 사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그 교회들을 '도시미자립교회'라고 부른다. 성도가 10명이 안 되는 곳이 허다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성도가 없어서 목회자가 정만 예배드리는 교회도 많다. 그 척박하고 외로운 교회와 동행하는 이들이 바로 '도시교회선교팀'이다. 그 긴 터널을 홀로 걷는 도시미자립교회의 든든한 동역자로 함께 걷고 있다.

온누리교회 다락방과 도시미자립교회의 연합

도시교회선교팀은 신생 사역팀이다. 2023년 창단했다. 도시미자립교회들이 지역 사회에서 예배와 전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명을 완수하고자 태동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사역이었는데,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올해부터 정식 사역팀이 됐다. 날마다 꿈과 비전이 자라고 있다.

도시교회선교팀의 사역은 단순히 재정을 지원하는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다. 온누리교회

가 가진 예배 노하우, 선교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양육 시스템까지 아낌없이 나눈다. 도시미자립교회가 스스로 자립하도록 건강한 토양을 제공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다. 박재광 팀장(도시교회선교팀)이 도시교회선교팀의 역할을 소개했다.

“도시교회선교팀은 온누리교회와 도시의 작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다락방1사역'이 핵심입니다. 온누리교회 다락방 식구들이 가진 시간과 재능, 기도의 능력을 도움이 필요한 지역 교회에 나누고,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 희망을 선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교회선교팀에서는 온누리교회와 지역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 사회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역이 도시교회선교팀의 꿈이자 비전, 역할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박재광 팀장의 설명처럼, 도시교회선교팀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도시미자립교회를 직접 찾아가 온누리교회 다락방과 연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1다락방1사역'을 중심 사역으로 연합의 장(場)을 만드는 것이다. 온누리교회 다락방과 도시미자립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도시미자립교회 시설을 보수해주고, 함께 지역 사회에서 전도도 한다. 도시미

자립교회를 위한 기도도 빼놓지 않는다.

그 덕분에 다시! 꿈의교회, 희년중앙교회의 고백

도시교회선교팀의 섬김이 도시미자립교회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선물한다. 경기도 동두천 꿈의교회(담임: 김천근 목사)가 도시교회선교팀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경험한 기적이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김천근牧사는 13년 전 지역 사회 복음화를 꿈꾸며 꿈의교회를 개척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목회 환경이 더욱 나빠졌다. 김천근 목사는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져 목회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었다. 도시교회선교팀 박재광 팀장이 꿈의교회를 방문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의 '1다락방1사역'을 소개하며 동역을 제안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김천근 목사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있었던 다른 교회의 지원이 금전에만 머물면서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한 경험 때문이었다.

하지만 온누리교회는 달랐다. 도시교회선교팀이 김천근 목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경청했다. 꿈의교회에 당장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신앙 정착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과 예배를 섬겨줄 사역자였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대일 제자양육'을 소개했다. 김천근 목사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꿈의교회에 도입하면서 기적을 경험했다.

“꿈의교회를 개척하고 150명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뿌리내리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제자양육을 도입하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떠나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성경 중심 그리고 복음 중심의 교재부터가 큰 은혜였습니다. 꿈의교회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은 성도가 다섯 명인데, 그들 모두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섬겨줄 사역자도 만났다. 꿈의교회 소식을 들은 복누리공동체 희랑다락방에서 피아노 반주자와 찬양 인도자를 파송했다. 꿈의교회를 위한 '365일 중보기도팀'도 결성해서 매일 기도했다. 그 중보기도 덕분에 꿈의교회에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다. 메마른 예배에 생기가 돌고, 성도들의 뜨거운 찬양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성도가 열 명도 안 돼 예배당이 텅 비어 있었는데, 그 자리가 하나둘 채워졌다. 도시교회선교팀의 섬김과 도움 덕분에 용기와 희망을 회복한 김천근 목사는 사모와 함께 다시 거리로 나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기쁨은 처음입니다. 온누리교회와 도시교회선교팀, 희랑다락방의 진심 어린 사랑

과 도움 덕분에 꿈의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꿈꿀 힘이 생겼습니다. 꿈의교회에 보내주신 큰 은혜를 저희도 다른 교회에 흘려보낼 것입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희년중앙교회(담임: 강용금 목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희년중앙교회는 2013년 도시의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의 관심에서 떨어진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졌다.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어주고, 생계가 막막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도시교회선교팀을 통해 희년중앙교회의 귀한 사역과 어려운 현실을 접한 관악금천공동체 소망다락방이 '1다락방1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소망다락방 각 순이 돌아가며 희년중앙교회를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희년중앙교회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함께 땀방울 흘리며 섬기고 있다. 무엇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희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강용금 목사가 온누리교회와 도시교회선교팀, 소망다락방에 꼭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큰 사랑과 도움을 주시고, 무엇보다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사랑 덕분에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희년중앙교회가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도록,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도심 곳곳에서 노방전도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매주 거리에 나가 복음을 외치지만, 건네줄 작은 선물 하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사람들의 닫힌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갈 아주 작은 정성조차 마련하기 벅찬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도시교회선교팀이 그들도 돕고 있다. 서울, 전북 군산, 경북 양산 등지에 있는 미자립교회에 매월 전도용 보리건빵을 보낸다. 이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할 손길을 기다린다.

도시교회선교팀은 도시의 미자립교회들과 사랑으로 연합하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주저앉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꿈꾸도록 격려한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며, 영혼 구원이라는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다. 그 아름다운 동행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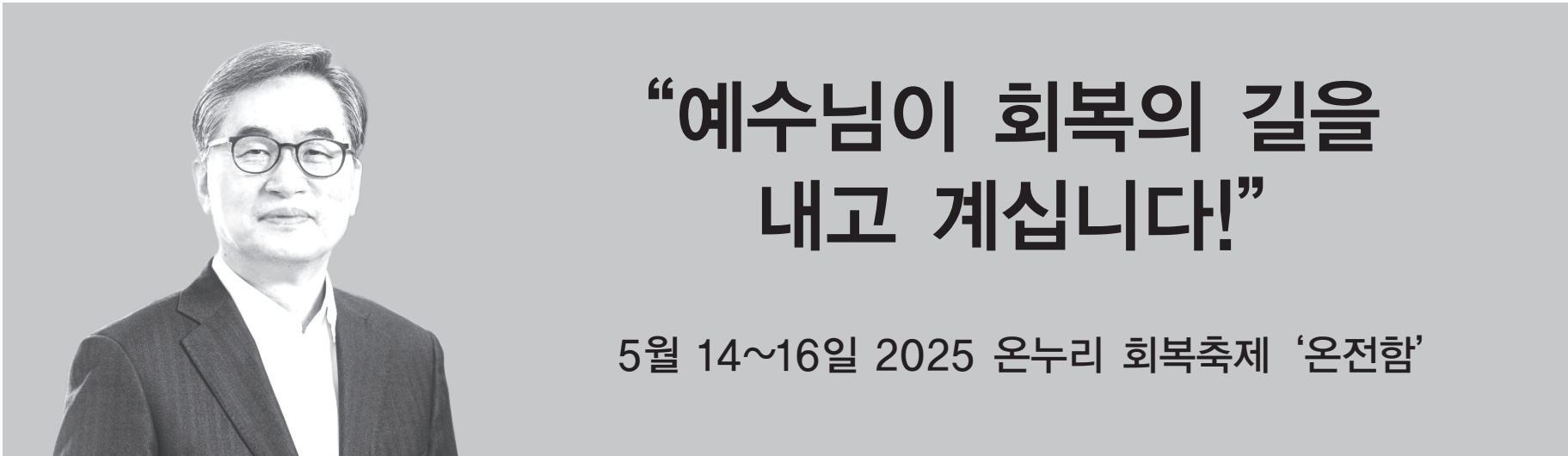
후원계좌: 하나은행 228-910021-63104(온누리교회 도시미자립교회지원팀)

*입금자명 '전도용품'으로 표기

문의: 박재광 팀장 010-2269-1591,

김현수 총무 010-2684-5312

회복사역본부장 이기원 목사와 함께



수많은 현대인이 불안과 우울, 고독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 아픔을 공감하고, 개인의 상처 치유를 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축제가 펼쳐진다. 2025 온누리 회복축제(이하 회복축제)가 ‘온전함’을 주제로 5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온누리교회 회복사역본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교회상담사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다. 무엇보다 회복축제 ‘온전함’에서는 ‘마음 돌봄’, ‘정신 치유’, ‘영혼 회복’을 일자별 주제로 심리와 정신, 관계와 영성 등 전인적 회복을 도모한다.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에게 회복축제 ‘온전함’의 유익과 그 의미를 물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회복축제 주제가 ‘온전함’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전함’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성도가 두려움과 우울, 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정신의학이나 심리상담실을 찾는 청년들도 급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올해 회복축제 주제를 ‘온전함’으로 선정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삶 속에서 무수히 상처받고,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그 영향으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한 모습에서 멀어진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이번 회복축제에서는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모습,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방황하지 않고, 온전함을 이루며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번 회복축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면의 상처 치유를 넘어서 각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번 회복축제를 온누리교회 회복사역본부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교회상담사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이 연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불어 이번 회복축제 강사진과 강의 내용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회복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기관의 연합입니다. 학술 연구가 기반인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교회 상담 현장 전문가가 네트워크인 ‘한국교회상담사역네트워크’, 그리고 23년 동안 회복사역 현장을 지켜온 ‘온누리교회 회복사역본부’가 공동주최합니다. 세 기관의 연합은 성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학문적 깊이, 상담 현장의 실제적 지혜, 그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룹니다. 강의 목록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들으십시오.”

이번 회복축제에서는 주로 내면의 문제를 다룹니다. 내면의 문제 해결이 이번 회복축제의 주제인 ‘온전함’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내면의 치유는 온전함과 깊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육이 분리될 수 없는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는 심리적인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신체 증상 혹은 대인관계 문제, 영적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내면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대처하는 과정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섭

성도들에게 이번 회복축제가 어떤 도움이 될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은 반드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복축제 참가자 모두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을 먹듯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회복의 길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더는 혼자서 고통 속에 머물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번 회복축제에 오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해결책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정서적, 정신적, 영적, 관계적 어려움 등 각자의 문제에 맞는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면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회복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에게도 매우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다가가는 방법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돕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심리상담이나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성을 더욱 키우고, 사역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 회복축제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강력한 치유의 은혜, 그리고 실제적인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함’을 향한 여정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더는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회복의 길을 내고 계십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아픔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반드시 이번 회복축제에 참가하십시오.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 내 가벼운 마음으로 오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아픔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이번 회복축제에 참가하십시오.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 내 가벼운 마음으로 오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리고 교회 공동체의 오랜 사역 경험의 시너지를 내게 할 것입니다. 세 기관의 만남과 연합이 더 깊고, 풍성한 회복축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 기관의 협력은 다채롭고 전문적이며 풍성한 강사진과 강의 내용을 만들어냈습니다. ‘온전함’을 주제로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영적, 신학적, 관계적 차원에서 더 깊은 회복을 돕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가합니다. ‘정신 건강 회복’, ‘심리적 치유’, ‘관계 회복’, ‘영적 성장’ 등 전문적인 강의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회복축제에서는 3일 동안 ‘마음 돌봄’, ‘정신 치유’, ‘영혼 회복’이라는 일자별 주제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오전에는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주강의가 이어지고, 오후에는 3일 동안 총 65개 선택강의가 제공됩니다. 참가자들의 상황과 필요에 가장 잘 맞는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감정 조절, 트라우마, 영성, 관계, 중독, 우울증

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건강한 형상, 그분의 온전한 디자인을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면에 자리 잡은 왜곡된 생각과 감정 패턴, 상처로 인한 방어기제들을 성령 안에서 말씀과 전문적인 심리상담, 정신의학 등의 도움으로 치유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과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과정입니다. ‘온전함’의 핵심입니다. 결국, 회복은 단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육체, 정서, 정신, 관계, 영성 등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Well-being)을 이루는 전인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복축제에서는 한 사람의 온전함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사회의 온전한 회복도 도모한다고 들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누군가의 온전한 회복을 돕고 싶은

불안세대 양성하는 나쁜 교육 ‘스마트폰의 심리학’

이 시대 아이들이 직면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불균형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따뜻한 심리학》 저자)

식당이나 KTX에서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것을 자주 본다. 기차에 타서 내릴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 시청하는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들의 집중력과 몰입감에 놀란다. 또한 IT 기기의 기술력과 콘텐츠에 감탄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자도 잘 모르는 어린이에게 저렇게 장시간 스마트폰을 맡기고 방치하는 부모의 과감함과 저돌성에 장탄식을 하곤 한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무너뜨리고, 갈등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약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린 시절을 스마트폰 기반에서 보낸 세대를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불안세대(Anxious Generation)’라고 부른다. 불안세대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가 널리 보급된 사회에서 성장한 세대를 말한다. 불안세대는 불안, 우울증, 자존감 등과 관련한 문제를 이전 세대보다 훨씬 많이 겪는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 세대에서는 우울증과 자살률이 엄청난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넘쳐난다.

최근 미국 각 주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키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중고생들에게 1인 1 태블릿PC를 지급하며 스마트 기기를 수업에서 활용하라고 정책적으로 권장한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탄생한 새로운 세대를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용어는 스마트폰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깊이 스며든 존재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한다. 포노 사피엔스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은 끊임없는 비교, 사이버 괴롭힘, 가짜 뉴스와 같은 해로운 콘텐츠에 지속해서 노출된다. 이 때문에 받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성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스마트폰 기반의 삶은 청소년들이 진정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갈등 해



결능력이 약화한다. 스마트폰에 과잉 의존해서 자란 세대는 현실에서의 대인 관계와 정서적 회복 탄력성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성장하게 된다.

놀이 기반 아동기 VS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

조너선 하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놀이 기반 아동기’를 경험한 세대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를 보낸 세대는 완전히 다른 심리적 특성을 보인다. 놀이 기반 아동기는 친구들과 함께 몸으로 놀고, 갈등을 해결하며,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겪는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대인 관계를 형성하며, 좌절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능력을 길러 준다.

반면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는 디지털 기기와 화면에서의 상호작용이 주요한 활동이다. 이들은 실제로 몸을 쓰고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이 부족하다. 그 결과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약화한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미숙해 진다. 예컨대 같은 이름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오징어 게임은 팅바닥에 오징어 모양을 그려놓고 하는 놀이다. 참가자들이 오징어 모양의 구역에서 각각 공격하는 팀과 수비하는 팀으로 나뉘어 특정 구역을 통과하거나 막는 방식이다. 공격하는 팀이나 막는 팀이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뛰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매우 활발한 놀이다. 팀워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튀기만 하면 안되고 구성원 간의 협동하는 능력을 자연스레 배우게 된다.

술래잡기 놀이가 변화된 ‘얼음 팽’이라는 놀이도 있다. 술래가 사람을 잡으면 “얼음!”을 외치고 그 상태로 멈추게 한다. 다른 사람이 “팽!”을 외치면서 얼어있는 사람을 구해

주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전통 놀이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 신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 집중력, 운동능력 등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기반의 아동들은 대개 팀워크가 필요 없는 상황에 산다. 그냥 가상 세계에서 홀로 게임을 하거나 혼자 정보를 소비할 뿐이다. 대신 끊임없이 변화하는 너무 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표류한다. 이러한 습관은 집중력 부족을 초래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기회를 차단한다. 스크린을 통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상황에도 지속해서 노출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불안 세대를 양산하는 배경이다.

현실 세계의 ‘과잉보호’ 가상 세계의 ‘과소보호’

안 그래도 인류는 남의 시선과 평가에 극도로 예민하다. 인정욕구가 본능에 가까운 정도로 강한 종(species)이다. 더욱이 청소년기에는 타인의 시선, 동년배의 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평가는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조너선 하이트는 오늘날 부모들과 교육 당국이 현실에서는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면서 가상 세계에서는 과소보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비판한다. 부모들은 자녀가 현실 세계에서 위험이나 실패를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한다. 자녀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기회를 차단한다. 모든 것이 안전하게 계획된 환경에서 자라게 만든다. 이는 ‘헬리콥터 부모(Helicopter Parents)’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헬리콥터 부모란 마치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위를 맴돌며 모든 상황을

관리하려는 과잉보호 성향의 부모들을 말한다. 그들은 자녀들이 현실 세계에서 더러운 흙바닥에서 ‘땅따먹기’를 하거나 ‘말뚝박기’와 같은 위험한 행동은 기겁하고 못하게 한다.

반면 가상 세계에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 부모들은 자녀가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와 경험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들이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게임에서 겪는 정서적, 정신적 도전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다. 심지어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는 위생적이고 덜 위험한 곳이라고 착각하는 부모들도 있다. 가상 세계에는 현실과 달리 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문제는 부모와 교육 당국이 현실과 가상 세계에서 일관성 없는 보호 방식, 근거 없는 나쁜 교육을 하면서 악화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왜 서울시 교육청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세계적인 경향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일까? 왜 학부모들은 이러한 현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일까? 중고생들에게 1인 1 태블릿PC를 지급하며, 디지털 기기 활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대착오적 현실에 왜 눈을 감는 것일까? 스마트 기기 사용을 교육의 중심으로 삼으면서 학생들을 집어삼킬지도 모르는 가상 세계의 토네이도 속으로 밀어 넣는 교육 당국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기기들이 지나치게 일상화되면 아이들은 집중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없다.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을 부추길 가능성이 훨씬 크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 그들이 실패하고 좌절을 겪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안전한 온실에서만 자란 식물은 엄혹한 현실의 땅에 뿌리내리기 어렵다.

현실 세계에는 더 과감하게 아이들을 풀어놓을 필요가 있다. 반면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엄격히 통제하고,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가상 세계의 어두운 뒷골목에 방치해서 ‘불안세대’로 만드는 이토록 ‘나쁜 교육’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이트의 말처럼, 지금은 현실 세계의 과잉보호와 가상 세계의 과소보호라는 불균형을 깨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맛있는 말씀 해설

“...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갈 6:13)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 마지막 권면 중에서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자들,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부분이다. 본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바울 서신의 더 넓은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바울은 할례라는 율법만 강조하면서 오히려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위선과 할례를 종교적 우위를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들의 이기심을 지적한다.

유대주의 선동가들은 갈라디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도록 애썼다(갈 6:12). 할례는 그들이 좋은 유대인이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언약에 대한 충실함을 공언하는 표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크게 두 가지 지적하며 가르치고 있다.

첫째,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자의 숫자를 증가시켜 사람들 앞에서 육신으로 자랑

할 근거를 가지려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교회 통계는 그들의 개종사역의 성공과 율법에 대한 열심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그들은 많은 사람을 유대교로 개종시킨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근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바울의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성도들의 영적 안녕에 관심을 두기보다 오히려 할례를 통한 자신들의 종교적 성공과 영향력에 관심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은 우리의 동기를 돌아보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겉모습을 통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가?

둘째, 본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도력과 사역의 본질을 성찰하도록 가르친다. 바울은 십자가가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상징임을 선언한다(14절). 그것은 자기 부정, 희생,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나타내는 것이지, 개인적인 성취나 종교적 교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행위가 아닌 믿음과 은혜에 기반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한다.

본문에서 바울이 비판하는 외적인 종교는 궁극적으로 속박과 위선으로 이어진다. 반면 참된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 받는 변화된 삶을 가져온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12절에서 언급하듯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임을 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위를 쌓으면서 타협과 종교적 화목을 따라가니 그것이 그들의 착각 속에서 곧 자연스러운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바울의 개종자들이 할례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기를 바랐다. 그렇게 하면 할례를 통해 자신들과 유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박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개인 차원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를 상기시키며 선언한다(갈 2:20).

결론적으로 본문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바울은 내적 실체, 우리 믿음의 진실성,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겸손에 집중하도록 권면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다(갈 2:20).



정동윤 목사
(Point5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4월 21일~4월 27일
〈인수기〉 14:1~15:41



목상포인트

1: 하나님은 믿음 없는 공동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공동체에 진노하신다. 참된 지도자는 진노의 심판 앞에서 공동체를 구해 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위기의 공동체를 살

리기 위해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믿음의 시각으로 공동체를 설득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목상하자.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공동체를 절망에 빠뜨렸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은 지휘관을 따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외친다. 가나안 땅의 거주민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백성에게 한낱 먹잇감에 불과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호소한다. 백성이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분을 멸시하는 백성을 모두 멸하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은 백성을 용서하시면서도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이들은 가나안 땅

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다.

목상포인트 2: 믿음의 말이든 불신의 말이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한 이들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불신의 말에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지 살피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자.

▶하나님은 정탐꾼들의 악평과 백성의 원망을 다 들으셨다. 그래서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원망한 20세 이상 백성 모두가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 동안 반역의 죄를 담당하게 된다. 가나안 땅을 악평한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유아들은 살아남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백성은 크게 슬퍼하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하던 백성은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목상포인트 3: 하나님 백성은 예배공동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예배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2세대가 기억할 제사 규례들이 무엇인지 목상하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한다. 가나안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때는 첫 소산의 떡을 거제로 드려야 한다. 회중 혹은 개인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정해진 제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러나 고의로 죄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 것이니 백성에 게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고의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게 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킨다.

하나님은 웃단 가장자리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다는 복장 규정을 주심으로 일상에서 하나님 계명을 기억하고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기도로 진노의 심판을 막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자.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영적 원리를 기억하고, 믿음의 말과 선한 말을 심어 그 열매를 거두자. ▶내 고집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살피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순종하자.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의 계명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도구)을 고안해 보자.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부모님을 위하여!

84세 저희 어머니가 3년 전, 맥박이 잘 잡히지 않아서 심박동기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목이 심하게 부어 류마티스센터와 협진이 있었고, 가성통풍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최근에는 걸을 때 숨이 차다는 어머니의 호소에 심장 진료를 예약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른쪽 손목이 부어 병원을 찾아 급히 진료를 받았습니다. 심한 염증이 있어서 손목을 고정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심박동기 관련 진료에서는 공동체의 기도로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심장 조영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하지 않아도 괜찮고, 부은 심장은 약으로 치료해 보자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과 마찬가지로 발목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염증이 어머니의 관절 여기저기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병 환자와 혈우병 환자를 믿음으로 치유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염증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의 건강 문제를 담대하게 받아들이도록 평강을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저희 부모님처럼, 믿지 않는 분들께도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박주영 순장(서초B공동체 63순)



초등교사가 크리스천 학부모님들께

학부모 상담, 같까요? 말까요?

모두 바쁜 3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나요?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나서 별도로 전화만 오지 않으면 일단 잘 적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지 않고, 잘 가는 것만으로도 효도랍니다.

저에겐 3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고3 자녀를 둔 친구인데, 믿음은 없지만 제게 기도를 부탁해서 1년을 정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만났는데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물고기 모양 반지를 했더라고요.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는 엄마들끼리 맞췄어.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끼우는 건데 물고기 머리가 엄지 쪽을 향하면 아이에게 좋대”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고3이 되면 엄마의 간절함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됩니다. 여기 저기에서 들은 좋은 것들을 다 해주고 싶고,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비용을 들지 않으면서도 우리 아이를 위한 일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월에 보통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이 ‘아이가 학교에 간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상담할 게 뭐 있겠어?’ 하고 상담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한 달이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하루 5시간 이상 매일 보면

식습관부터 성격, 관계, 습관, 취미 등 정말 많은 걸 알게 되거든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와 교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협력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걱정되는 점을 선생님과 공유하며 나아질 방법을 찾는 과정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긍정적 상담을 받은 부모님들은 학교에 더 오려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은 아예 학교와 연락을 단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 더 필요한 가정일수록 상담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아이의 어려움은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고, 걱정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듯이,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학교 선생님과 협력을 이루어 가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이 초등학교에 와서 교사에게 무척이나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당황해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는데요?”라고들 하시죠.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인터넷 이용 검사’를 했는데 한 아이가 ‘중독’ 단계였습니다. 실제로 교실에서 문제행동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와 상담했는데, “우리 아이는 집에

서 아예 컴퓨터를 하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서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오셔서 “우리 부부가 다 일을 하니까 아이가 PC방에 가서 컴퓨터를 많이 했더라고요.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이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학부모님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의 아이를 가르치면서 내 아이 문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몹시 힘들어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가정에서 보는 아이와 학교에서 보는 아이는 다릅니다. 교사에게 특별한 관찰 능력이 있다가보다 20여 명 아이 중 한 명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마다 특성이 있긴 하지만, 아이가 바르게 크도록 가르치려는 마음은 다 같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협력자로 생각하고 솔직하게 아이의 모습을 털어놓으면서 상담해 보시면 어떨까요? 솔직하게 아이의 상황을 밝히는 부모님께서는 선생님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의 모습을 알고 싶으신 만큼 집에서 의 모습도 공유해 보세요. 선생님 나이가 젊다고 모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나이나 성별, 그 무엇으로도 선입견 갖지 마시고, 그냥 ‘내

아이의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학부모 TIP!

1. 학교 상담 전에 미리 궁금한 것들을 선생님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알찬 상담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누구랑 친한가요?’, ‘쉬는 시간엔 뭘 하며 노나요?’, ‘불편한 친구 000가 있는데 살펴봐 주세요.’ 아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문제 해결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곧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나는 말은 아이들에게 선물보다 체험을 선물하라



최민혜 교사
(부천온누리교회, 석천초등학교, <야누시 코르차크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닌 아름다운 길로 이끌기를> 저자)

이슈(Issue) 바로보기!

기독교인을 에워싼 다원주의 프레임

오늘날, 기독교를 위협하는 거대한 골리앗 중 하나는 다원주의 세계관이다. 다원주의는 ‘다른 견해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다른 진리라도 모두 똑같은 진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까지 나가기 때문이다. ‘초월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도 모자라, 보편적 도덕마저 억압적이란 이유로 강하게 거부한다. 타협을 거부하는 기독교인은 당연히 미움의 대상이 되고, 결핍하면 ‘다양성을 짓밟는다’는 프레임에 갇히고 만다.

이렇듯 절대적 진리를 배척하는 ‘도덕적 상대주의’는 필연적으로 ‘나의 절대화’로 치닫는다. 사실과 가치보다 감정과 주관이 중요하다 보니 ‘나의 생각’을 진리로 대체한다. 이런 ‘자기중심성’은 인간의 타락한 본능에 영합하기 쉽다. 전통적 가치인 희생, 용기, 정직, 책임 등이 종적을 감추고, 개인과 사회의 윤리는 끝없이 추락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인간 존엄성에서 출발한 자기결정권이 다원주의 세례를 받은 자기중심성과 결합해 극심한 가치 전쟁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결항 것인지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라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혼인과 가정의 유지보다 개

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앞세운 간통죄 폐지 결정을 했다. 법원도 동성 간 성행위에 관한 균형법 적용을 제한하고, 동성 커플을 사실혼과 같이 평가해 피부양 자격을 인정했다. 이젠 ‘선택’이란 용어가 인간 행동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 내지 궁극적 가치로까지 격상한 느낌이다. 지금도 뻔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거대한 거짓말을 주입하고,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과 같은 권력’을 갈망한다.

과거 도덕률이 존재하던 시대엔 ‘옳고 그름의 경계’가 분명했다. ‘도덕적 합의 없이 법이 있을 수 없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처럼, 법은 도덕을 법제화해 놓은 거였다. 그러나 금세기 들어 법을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가 강제력에 대한 과학’, ‘사회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때문 ‘유토피아적 거짓 환상을 위해 사람을 조종하는 도구’로까지 불린다. 법의 위상이 추락한 거다. 아이러니한 건 바닥에 떨어진 법이 힘은 더 강해졌다는 점이다. 도덕이 부재한 사회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질서를 잡아주는 권력이 법이기 때문이다. 법이 흔들리면 사회도 존립하기 어렵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엔 선악이 공존하고, 선택엔 책임이 따른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보신다는 관점이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삶의 이타적 가치를 끌어낸다. 이런 초월성의 상실은 사회의 정의도, 개인의 인격도 무너뜨리기 쉽다. 실제로 다원주의 세계관에 뒤덮인 지금은 인간의 죄성을 억제해 온 두 가지 힘, 바로 ‘양심’과 ‘칼’ 중에서 칼만 남은 형국이다. 양심이 부재한 사회는 규제나 감시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복잡하고 새로운 규칙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다. 양심이 무너지면 때마다 권력은 칼을 휘두른다. 한데 정의롭지 못한 칼날은 해악이 크다. 도덕의 부재에 이은 법의 타락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우리나라도 법의 칼날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법이 탐다운 방식으로 특정 가치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입법과 사법이 대단히 빠리 그리고 극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목도한다. 옳고, 그름의 영역에 대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복잡하고 교묘한 법들을 무수히 찍어내는 ‘입법의 과잉과 남용’, 상위법의 통제도 받지 않고 다수의 뜻도 싫어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적지 않

은 우려를 낳고 있다.

창조질서에 부합하는 법과 정의를 세우는 건 다원주의 골리앗과의 영적 전쟁이다. 전략과 용기를 구하자! 진리를 거부하는 세속사회를 향한 ‘원칙을 가진 설득’과 ‘책임 있는 참여’는 기독교인의 복음적 사명이다.

다만, 우리는 다원주의 프레임을 깨뜨리면 이상향이 도래한다고 믿는 유토피아주의자는 아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법과 양심에 의해 통제받는 게 마땅하고,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고 믿는 종말론자다.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말씀대로 살려는 용기를 가지고, 공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자! 비전을 품은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하용조 목사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성령의 사람이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이은경 변호사
(OCC공동체,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크레도 대표이사)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

4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2025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가 4월 25일(금) 오전 11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지하 1층)에서 열린다. 희망콘서트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2025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에서는 가수 이무송 집사가 사회를 보고, 가스펠 보컬 밴드 크룩스, 색소폰 연주자 김선민, 가수 신인선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메시지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전한다. 온사랑합창단과 사랑챔버 공연도 이어진다.

희망콘서트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지난해 열린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2024 희망콘서트’.

연락처 등을 기록하면 된다.

문의: 02-3215-326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부채탈출119’ 참가자 모집

5월 15일까지 가계재정상담신청서 제출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에서 ‘부채탈출119’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1일(일)까지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심각한 부채문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나 이웃(온누리교회 등록교인 추천)이 대상이다. 가계재정상담을 원하는 성도들은 5월 11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이메일(mayoh@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

부채탈출119는 법률전문가 및 재무전문가와 함께 청장년의 개인부채 및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부채상담 프로그램이다. ‘기초상담 및 응급처치’, ‘부채 해결 방법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정밀 진단’, ‘부채 정리 & 안정적 생활을 위한 방법 제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의: 010-5550-3655

2025 러브&매리지 1기 참가자 모집

5월 17일과 24일 오후 2시 대학로 이룸

행가래운동본부와 가정문화원에서 주최하는 2025 러브&매리지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7일과 24일 토요일 오후 2시 대학로 이룸 3층(혜화역 4번 출구 한성예수센터)에서 진행된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싱글 크리스천 남녀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5월 4일(일)까지 사단법인 행가래 네이버 카페나 QR로 하

면된다. 회비는 9만 원.

러브&매리지는 비혼주의·동거가 만연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 건강한 사랑, 결혼과 가정에 대한 바른 세계관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조용호 교수(전주비전대학교)와 감미향 목사(가정사역공동체) 부부가 강의한다.



/ 박지혜 기자

양재 만남의 잔치

일시: 4월 20일 15:30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

강남A 김 석 김아름 오진선 우지현	우상기 최강원 최흥기 최희정	안슬기 이오성 임재운 정진영	이자영 장문용 장영우 정진영	최병석 서초A 신수정 장지은 최재우	서초C 공선희 김민경 유철하 정홍철 한혜정	송파B 김혜민 민성원 유철하 정홍철 한혜정	염혜단 이광진 이성훈 이세령 정길운 최정숙
강남B 지우석	강남D 김해영 윤지현	과천의왕 유병학	분당A 김문엽	서초B 백소연 하재욱	양재A 고태종 김명순 박순자	양재B 김은아 남궁혜수 송 훈 황재우	
강남C 김영은	강남E 성기민	도곡 강민재	분당B 류완수 윤영순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CGN 신규 콘텐츠 ‘피아노 포 유’

쉽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피아노 반주법

CGN이 신규 콘텐츠 ‘피아노 포 유(Piano for U)’를 공개했다. 찬양 사역의 핵심 악기인 피아노 연주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선교지와 소규모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피아노 교수법 특허를 받은 송지혜 박사가 강의한다.

‘피아노 포 유’는 총 10회 진행된 다. 지난 4월 16일 기록 OTT ‘풍당’

에 공개한 1편에서는 ‘피아노와 선교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2-6편에서는 찬송가를 은혜롭게 연주하는 방법과 기술을 배우고, 7-9편에서는 사례자(선교사, 성도 등) 실습 등을 한다. 마지막 10편에서는 피아노 연주할 때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고 답하는 ‘피아노 Q&A’를 한다. 기록 OTT ‘풍당’에서 시청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2025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

5월 26~27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컨벤션 센터

‘2025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가 5월 26일(월)과 27일(화) 교회여, AI로 미래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기록 OTT ‘풍당’ 홈페이지나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성도와 CGN 후원자는 참가비 50%를 할인해준다.

2025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에서는 AI 기술과 기록 OTT ‘풍당’을

활용한 미래 교회의 목회 전략을 모색하고, 미디어 사역에 AI 트렌드를 접목하는 강의와 세미나가 이어진다.

이재훈 위임목사, 김택진 소장(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유혁 교수(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Gloo AI 최고책임자 스틸 빌링스(Steele Billings) 등이 강의한다.

문의: 02-3275-9372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장로사관학교 수련회 조장 및 훈련생 부부 240명 참석

장로사관학교(교장: 이재훈 위임목사, 대표: 임희창 장로) 수련회가 지난 4월 4일(토)과 5일(일) 경기도 양평 블루비스타호텔에서 있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 10:24)’를 주제로 진행된 장로사관학교 수련회에는 조장 및 훈련생 부부 240명이 참석했다.

장로사관학교 수련회 첫날 저녁에는 노치형 목사(행정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말씀, 기도회를 했다. 둘째 날에는 김수민 권사가 ‘가족’을 주제로 토크쇼 ‘아줌마들의 수다(아수다)’를 진행했고, 대표기도문 작성, 캠퍼스와 사역본부 탐방, 러브 소나타, 장로고시, CGN 소개 등을

했다.

이번 장로사관학교 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은 장로사관학교 교육과정의 네 가지 목표인 깊은 영성, 따뜻한 감성, 절제된 창조성, 아름다운 팀워크를 몸소 배우고 익혔다.

올해 장로사관학교는 지난 3월 15일(토) 개강했다. 오는 10월 18일까지 온누리교회 장로 장립을 위한 준비과정인 이어진다.



온누리세계관학교 심화과정 참가자 모집

4월 22일부터 매주 화 오후 7시

온누리세계관학교 심화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4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신동아쇼 핑센터 312호에서 진행된다.

온누리세계관학교 심화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세계관’ 황성준(前 문화일보 논설위원),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중동 분쟁과 그 해결점 모색’ 김종일 목사(아신대 교수), ‘복음의 관점으

로 다시 보는 영화 이야기’ 정상원 교수(서울사이버대 부총장), ‘최신 연구 결과를 통해 고찰한 진화론의 허구성’ 하주현 장로(경희대 의대 교수), ‘AI, 미래 사회와 성경적 세계관’ 이재규 장로(카이스트 명예 교수)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1학점 이수 가능하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2-3215-3281

장로칼럼

봄에게 삶의 의미를 묻다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이다. 길고 긴 겨울 추위 속에서 고난을 견뎌내고 고통을 녹아내려 줄 봄이 왔다. 봄은 따뜻한 희망을 담고, 죽은 것 같은 몸을 일으켜 세워 새 생명을 갖게 한다. 겨우내 시들었던 줄기들이 사순절 지나 부활절이 오기까지 옛 몸이 새 몸을 입고 싹싹 자란다. 새 생명은 여름에 성장해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는 죽은 듯 침묵한다.

식물이 성장하고 죽기까지 과정은 인간과 유사하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노년에 이르러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생애(生涯)라 한다. 어떤 사람은 적당한 온도와 충분한 물, 그리고 부드러운 흙과 따스한 햇볕을 받고 살지만, 누군가는 과도한 온도와 부족한 물, 딱딱한 흙이나 햇빛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조선 시대 3대 왕 태종 이방원은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스스로 나라를 만들어 왕이 된 도전의 아이콘, 안되면 될 수 있게 상황을 반전시키는 힘을 가진 사람, 꾸준히 준비해서 자신의 때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었다. 이방원은 이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왕이 아닐까 싶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식을 두루 통섭(統攝)했던 故 이여령 선생은 죽기 3년 전부터 “나 병 걸려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간다. 물어볼 것 있으면 지금 다 물어보라”고 했다. “잘 놀다 간다”고 말하듯 구원받고 격조 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천국으로 갔다. 하지만 수조 원을 가진 어떤 재벌은 재다신약(財多身弱)된 사람도 있다. 수

십 번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며 진을 빼고, 이해관계의 인간들로만 둘러싸여 살다가 속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 하나 없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돈이 없어도 문제고, 수조 원을 가져도 죽어야 하는 게 인간이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삶이 왜 중요할까? ‘의미(意味)’는 인간에게 삶의 목적과 자기 정체성에 기초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순간 아닐까 싶다. 의미의 상실은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성경은 삶의 의미에 대해 “하나님이 각 사람의 삶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고 했다. 또한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베드로전·후서>를 썼다. 사도 바울도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탁월한 글솜씨로 수많은 성경을 쓰고 기독교의 뼈대를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 문제는 그 부족함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이다. 열등감을 잘 극복하면 부족함이 오히려 자기 발전의 자렛대가 될 것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왜 이 일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공허와 허탈감이라는 위기를 만날 수 있다. 삶의 의미가 분명한 사람이라야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께 구할 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권사칼럼

내가 사는 이유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몇 주 전 주일 아침이었다. 그날따라 날씨가 화창했다. 꾸물거리다 보니 9시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다. 예배에 늦을세라 숨이 턱에 닿게 부지런히 걸어 교회 문 앞에 당도했다. 그런데 문 앞에 당연히 있어야 할 목사님, 장로님 차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획 끼쳤다. 아무도 없었다. 순간 성경에 나오는 휴거가 연상됐다. ‘아니 나만 남고 모두 들립을 받았나?’ 핸드폰 날짜를 쳐보았다. 아뵐새!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었다. 어쩔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그리 착각할 수가 있는지. 빈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하고 되짚어 집에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며 걸었다. 논두렁과 밭두렁에 온통 파릇한 새싹들이 앞다투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온 천지에 생명의 생기가 넘친다. 늘 철문의 자물쇠가 굳게 닫혀 있던 저택의 쪽문이 삐뚤어져 열려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는 사람 없이 비어 있는 집이다. 평소 저 집은 어찌 생겼을까 궁금하던 터였다. 살짝 문을 밀고 들어가 보기로 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다. 입구 연못에는 오리들이 노닐고 있었다. 나무들이 숲처럼 우거진 마당을 한참 걸어 들어갔더니 그리 크지 않은 고가가 나왔다. 뒤는 산과 연결되어 있어 숲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었다. 사람이 살지 않아 어찌 휘황하고 적막감마저 들었다. 이 집도 주인이 지키고 있을 때는 생기가 돌던 그림 같은 집이었으련만.

저택을 구경하고 돌아오면서 참 많은 걸 생

각했다. 자손이 와서 살 형편은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관리하는 힘들고 이 좋은 집도 자손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도 아니고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돈은 의미 있게 쓰일 때 가치가 있다. 쌓아두기만 하면 그저 종잇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노후 재정 관리를 현명하게 판단해 처신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된다.

우리 집 마당에도 봄빛이 완연하다. 어느새 냉이도, 쑥도 파릇파릇 새싹이 돋았다. 산수유도 노오란 눈을 뜨고 목련도 곧 꽃잎이 터질 듯 한창 물이 올랐다. 자연의 순환이 참으로 신비롭다. 이제 텃밭 농사 준비를 슬슬 해야겠다. 환하던 하늘이 갑자기 잿빛으로 변하더니 함박눈이 내렸다. 반가운 춘설이다. 눈을 보고 있자니 오래도록 잡지 못한 산불이 생각나 가슴이 아렸다. 우리집 마당에 함박눈이 떨어진 그날에도 불길기 거세게 번지고 있던 터라 그저 비가 댔건 눈이 댔건 많이 내려 꺼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순식간에 천지가 눈으로 덮이더니 그새 쟁하고 햇볕이 나왔다. 나무에 쌓이던 눈이 금세 녹아내렸다. 조화 속이다. 참말로 야속도 하다. 어찌 고것 오고 멈춘단 말인가! 누라서 창조주의 위대한 힘 앞에 맞설 자가 있을까? 비 한 번이면 족할 일을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인간의 연약한 한계가 더없이 크게 와닿았다.

창조주의 위대함 앞에 한없이 낮아짐을 고백하며 내 삶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를 만드신 분의 목적에 맞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게 최선 아닐까? 우선순위를 망각하지 않고 삶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내 삶이 더 가치 있고 풍성해지리라.

신앙에세이

정연상 목사
(서빙교 차세대)

뜨거운 태양, 끝없이 펼쳐진 야자수, 그리고 향신료가 가득한 나시고랭. 인도네시아를 떠올릴 때 흔히 연상되는 장면들이다. 그러나 이번 비전트립에서 나에게 깊이 새겨진 이미지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다. 지난 2월, 여러 교역자와 함께 인도네시아 컴패션 비전트립에 참여했다.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가정을 심방했다. 한 가정과 만남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였다.

그 가정에는 세 딸과 한 명의 아들이 있었다. 첫째 딸이 컴패션의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녀의 삶이 도전과 신앙의 증거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며 줄곧 반에서 1등을 했는데, 학교에서 그녀의 성적을 인정하지 않

았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1등이 될 수 없어”라는 말을 듣고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을 공부해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꿈을 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용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가정 심방을 하면서 그녀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다. 기도가 끝나고 미소 짓는 그녀를 본 순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하시고, 그녀를 통해 이곳에 정의를 세우실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사역을 앞두고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올까?’, ‘낮선 나라에서 찾아온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가 걱정이었다. 비눗방울 등 여러 놀이도 준비했지만, 아이들이 우리를 반겨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열어 놓고 계셨다.

현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교제했다. 몇몇 청소년들이 우리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한 명이 용기 내 다가와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라고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더니 아이들이 눈망울을 반짝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혹시 여러분은 연예인이예요?”라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다. 당황하면서 손사래를 쳤는데, 한 친구가 우리를 뵈히 바라보더니 “BTS 닳았어요!”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갑자기 ‘연예인급 한국 오빠’가 되어버린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들의 밝은 반응에 웃음이 터졌다. 연예인을 닳았다는 외침에 아이들 몇몇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비교까지 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현지 교회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란다. 이분은 우리를 위해 멀리서 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여기 있단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사진도 찍고, 대화를 나

누며 더 가까워졌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는구나.’ 나의 걱정과 달리 하나님이 이미 길을 예비해 두셨다.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인도네시아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내가 떠난 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괴롭힘을 받던 그녀는 여전히 학교에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통해 반드시 크신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다. 그녀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번 비전트립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정의 그리고 그분이 직접 일하시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 또한 내 자리에서 작은 정의를 실천해 나가리라.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교회여, AI로 미래를 준비하라!

#AI #풍당플랫폼 #미래교회 #목회전략 #소그룹세미나 #네트워크

FONDANT MEDIA CONFERENCE 2025

2025.5.26. 월 - 27. 화

SWISS GRAND HOTEL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온라인 사전등록안내

온누리교회 교인	신학생	현장 등록 및 풍당 비회원
5만 원	4만 원	10만 원

*단체등록 할인 이벤트 (5인 등록 시, 1인 무료)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 fondantmc.com에서 확인하세요.



FMC 25 홈페이지 행사 문의 02-3275-9372 CGN fondant

FMC25 주요 강사 소개

AI 기술과 풍당 플랫폼으로 보는 목회와 미래 교회 KEYNOTE



이재운 목사
CGN 이사장
온누리 교회



유 혁 교수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김덕진 소장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Steele Billings
Gloop AI 최고 책임자
(영상인터뷰)

실제 목회 및 교회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그룹세미나(선택강의)

26일(월) DAY 1

1st TIME

- 풍당 플랫폼과 교회 계정 활용
- AI 트렌드와 솔루션 배우기(초급)
- AI 목회 활용하기(초급)
- AI 교회 음악 만들기
- 풍당으로 교회학교 운영하기

2nd TIME

- 풍당 콘텐츠 교회 활용하기
- AI를 활용한 교회문서 A to Z
- AI 목회 활용하기(중급)
- AI 활용한 디지털 선교 전략
- 목회를 위한 숏폼 영상 기획/제작

27일(화) DAY 2

1st TIME

- 풍당 플랫폼과 교회 계정 활용
- AI 트렌드와 솔루션 배우기(초급)
- Chat GPT 목회 활용 하기(초급)
- AI 교회 음악 만들기
- 목회를 위한 숏폼 영상 기획/제작

2nd TIME

- 풍당 콘텐츠 교회 활용하기
- AI를 활용한 교회문서 A to Z
- Chat GPT 목회 활용 하기(중급)
- 디지털과 AI 시대의 선교방향
- 기업 사례로 보는 목회 전략

3rd TIME

- 풍당으로 교회학교 운영하기
- 기업 사례로 보는 목회 전략
- 나만의 AI 비서 만들기 | CGN
- 기업 사례로 보는 목회 활용 전략
- 기업 사례로 보는 목회 활용 전략